

- 발신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
- 제목 [사후보도자료] 이란 정부의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과 이란 히잡 관련 시위 대 탄압 규탄 기자회견 (10/19 오전10시반, 이란대사관 앞, 발언문 및 사진 포함)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070-8801-0308), 총11쪽(온라인액션 홍보, 기자회견문)

**이란 정부는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이란 히잡 관련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란 대사관 측 주차로 기자회견 방해해
여성 선수 개인이 스스로 조기 귀국했다는 해명은 현실과 맞지 않아
머리 자르는 액션에 4명의 한국 활동가 동참, 이란 여성들과 한국 고등학생도 참여**

1. 지난 10월 5일 이란의 여성해방과 민주주의를 향한 이란 민중들의 히잡 관련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이 만들어졌고 집회와 온오프라인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별첨)
2. 그런데 어제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클라이밍 선수 레카비의 행방이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은 내일 오전 (10월19일 오전 10시반) 긴급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재 레카비를 이란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는 소식도 있으나 이도 정확하지 않으며 설사 무사히 귀국했을지라도 이란에서 교도소에 강제 수용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후 이란대사관과 레카비 선수의 인스타에 자의로 귀국 했다는 해명이 있었으니 강제 귀국조치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남았고, 더구나 여성선수 개인의 마음대로 일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란대사관의 해명은 믿기 어렵습니다.
3. 이에 한국시민모임은 이란 정부에 레카비 선수의 강제 귀국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스 귀국 후 레카비 선수의 교도소 수감 등의 예상되는 탄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란 분들도 함께 할 예정이며, 한국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연대의 의미로 머리를 자르는 액션도 했습니다.
4. 기자회견 중간에 이란대사관측은 주차를 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등 최소한의 외교적 예의도 지키지 않아 참여자들의 비판을 더 높였습니다. 아래에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사진, 온라인 공동행동 자료를 첨부합니다.

*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플랫폼C, 국제민주연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불꽃페미액션, 전환 서울, 너머서울 젠더팀,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사회진보연대, 녹색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이란 정부는 히잡 관련 시위에 대해 탄압을 중단하라! 이란 정부의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과 이란 히잡 관련 시위대 탄압 규탄 기자회견

사회-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1.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
2. 여미애_전환 서울 사회연대위원장, 너머서울젠더팀장
3. 정은희 _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여성운동위원장
4. 이란 출신 여성 발언- 박씨마
5. 조예원 _ 용인외대부고 인권운동아리 프로젝트 저스티스
6.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근(성공회대 인권위), 이지영(플랫폼C)
7. 항의와 연대의 퍼포먼스 :머르자르기 액션
: 명숙(인권운동 바람), 혜원, 한박수영(불꽃페미액션), 정은희(전진)

○ 10/19 오전10시반, 이란대사관 앞

- 주최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

<덧붙임1>[이란시위를 지지하는 온라인 행동]

WOMAN LIFE FREEDOM

**나 _____는 여성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란 시위를 지지합니다!**

#여성 #삶 #자유

이란 정부는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고, 정해진 착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폭력과 살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에 맞서 이란 여성들은 히잡을 벗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위는 성별을 뛰어넘는 저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이란 시민 2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란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끊는 등 시위에 대해 무력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투쟁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정도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연대 행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Woman) 삶(Life) 자유(Freedom)’ 한국 시민들도 이란 여성들의 투쟁에 연대합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시위대를 탄압하는 반민주적인 이란 정부를 규탄하고 이란 시위를 지지하는 온라인 행동에 참여해주세요!

<온라인 행동 참여 방법 1. 인증샷>

- 인증샷 이미지를 들거나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Stand_with_Iranian_people #HairForFreedom #WomanLifeFreedom #MahsaAmini #مهسا امینی
#여성삶자유 #이란시위를_지지합니다

- 페이스북이라면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 / 트위터라면 @KoreaCivilgroup 태그해주세요!

<온라인 행동 참여 방법2. 머리카락 자르기>

- 투쟁하는 이란 여성들에게 연대하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주세요.
-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Stand_with_Iranian_people #HairForFreedom #WomanLifeFreedom #MahsaAmini #مهسا امینی
#여성삶자유 #이란시위를_지지합니다

- 페이스북이라면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 / 트위터라면 @KoreaCivilgroup 태그해주세요!

<인증샷 이미지 문구>

Woman Life Freedom

여성 삶 자유

나 ____는 여성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란 시위를 지지합니다!

<발언문 모음>

1.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

안녕하세요, 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 김연주입니다. 저는 레카비 선수의 긴급한 출국을 강행하며 탄압을 시도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와, 머뭇히 한국에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레카비 선수의 경기 후 휴대폰과 여권을 압수당하였고, 대사관이 개입하여 강제로 이란으로 송환되었다는 보도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히잡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문사 당한 마흐샤 아미니 씨의 죽음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과 여성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국제대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한 선수를 강제로 끌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론들, 그리고 이란인들은 레카비 선수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레카비 선수를 긴급히 끌고 간 일련의 이란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란 정부가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탄압을 당장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과 움직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30여년 전인 1992년에 난민협약을 가입하였고, 1995년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난민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명과 신체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체약국의 의무입니다.

이란 당국의 여성 탄압에 대해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고, 한국에는 이란 정부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비호를 구해 이미 난민인정을 받은 이도 다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경기에 참여한 레카비 선수에 대한 외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선수의 보호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난민법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해 난민신청에 대해 문의하거나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 안내와 정보제공을 하는 것 또한 한국 정부의 의무라 보여집니다. 한국 땅에서 대사관으로 끌려가고 공항으로 끌려가고 강제적으로 국경을 떠날때까지 수많은 한국의 출입국 공무원과 기관을 만났을 것인데 어느 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무를 방기한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수가 출국당한 과정의 모든 기록, CCTV 등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확인하여 위법한 강제송환이 있었는가의 당시 정황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여미에 (전환서울, 너머서울 젠더팀)

서울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여한 레카비 선수가 17일 귀국한 이래 이틀 동안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레카비 선수는 결승 경기 중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이란 당국에게 도덕적 규율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선수는 최근 이란 전역에 번진 ‘히잡 의문사’에 항거하는 시위에 동참하며,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옹호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란은 이란 클라이밍 연맹 회장을 사주해 휴대폰과 여권을 압수하고 레카비 선수를 강제입국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레카비 선수는 현재 8명이 숨진 정치범 수용소인 에빈 교도소로 이동해 신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치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국에 항거한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강제 송치된 상황을 보편 및 평등 인권을 향유하는 세계 시민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범 불인도 협약에 의거해 대한민국은 정치적 성격을 띤 범죄자를 당국으로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카비 선수는 자국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행위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레카비 선수의 정치범 수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란의 인권은 문화 상대주의의 이름으로 외면될 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사회 기득권층과 다른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권리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란 신정의 전체 주의적 논리를 옹호해선 안 됩니다. 정부가 레카비 선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세계인권선언에 규명된 인권의 수호 임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정은희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여성운동위원장)

이란 정권의 여성 억압은 단지 히잡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식 결혼 연령은 13세이며, 아버지의 허락이 있으면 더 어린 나이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까지 한해 동안 10-14세 소녀 31,379명이 결혼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요법이 여전히 만연하고, 이들은 채찍에서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임신중지의 권리 역시 사실상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2014년에는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9천 명이 구금됐고, 더구나 여전히 많은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의무 복장 규정은 1980년대 지배계급이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사회 계층을 동원하여 문화 정책을 지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근본주의화된 이슬람 정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이란 패션업계는 미디어를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가부장적인 이미지를 강요해 왔습니다. 여성의 몸에 특정한 의복 패션을 상품으로 강요하는 것은 이란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도'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실체는 이란에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고, 굴욕하고, 상품화하고, 젠더 갈등을 심화하고, 계급적 요구를 주변화하는 지배계급의 도구로 사용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란을 인권의 이름으로 비판하지만, 이란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지원했던 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제국주의였습니다. 이란 세속화 팔레비 정권 시절 미국은 그들의 석유자원을 탐욕하며 그들을 지지했으며, 지금은 인권의 이름으로 이란을 제재하지만 그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란 여성과 민중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50여 년 전 이란 팔레비 2세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 학생들은 이에 저항했고 나아가 68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연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 명의 여성이 죽임당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이란의 여성억압과 부당한 권력, 가로막힌 자유는 지구적인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억압되는 여성들의 처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란 정부와 한국 정부를 규탄합니다.

전진은 어제 배예주 동지께서 기사로 이번 문제를 규탄했는데요, 그는 여성억압에 맞선 국제연대는 이란 민중과 함께 우리의 권리 역시 키워나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맞습니다. 마흐사 아미니의 신당역에서 살해된 여성노동자와 블랙 라이브즈 매터를 외치는 수많은 흑인여성들, 팔레스타인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히잡을 쓰건 쓰지 않건 그것은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란 정부와 함께 레카비 선수의 신변을 지키지 못한 한국 정부를 규탄합니다.

<기자회견문>

이란 정부는 레카비 선수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란 여성들에게도 히잡 착용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엘나즈 레카비 선수가 히잡을 쓰지 않고 출전했다는 이유로 이란으로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대사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레카비가 자의로 출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도 정확하지 않으며 설사 무사히 출국했을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귀국으로 그녀의 친구들도 연락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지 매체인 <이란와이어>는 “레카비가 공항에서 곧바로 에빈 교도소로 이동할 것” 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번 사건은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선수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다.

이는 이란 정부가 여전히 여성들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국가폭력, 여성인권침해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달 히잡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문사 당한 마흐샤 아미니 씨의 죽음 이후 연일 이란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란 정부는 잘못된 반인권 반여성 반민주 정치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란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해 200여명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참담하기 이를 말할 수 없다. 유엔인권규약 가입 유무를 떠나서 유엔 가입국들이 최소한 지켜야할 인권보호의 의무를 상기한다면, 이란 정부의 행태는 매우 문제적이다.

특히 국제대회에 온 선수를 본국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은, 이란 정부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음을 뜻한다. 이후 이란대사관과 레카비 선수의 인스타에 자의로 귀국했다는 해명이 있었으니 강제 귀국조치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남았고, 더구나 여성선수 개인의 마음대로 일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란대사관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은 이란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레카비 선수의 강제귀국 조치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 여성선수 개인이 본래 일정보다 귀국하는 일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해명과 레카비 선수에 대한 압박을 통해 거짓해명을 한 것이라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 이란으로 귀국한 레카비 선수를 탄압하지 마라. 현지 매체가 그녀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현실이 된다면 강제로 끌고 간 것임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여성들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하지 말라.

넷째. 이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덧붙여 우리는 한국정부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정부가 공식적인 세계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본국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동안 한국정부는 선수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으며, 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제대회의 개최지로서 선수보호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국가가 이란 정부의 반인권행위를 눈감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 시민을 비롯한 전 세계 시민들은 온라인과 대면공간에서 연대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도 이란 여성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제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연대는 히잡의문사 이후 이란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민중들의 폭압적인 정부에 맞선 민주화 시위에 대한 열렬한 응원이기도 하다. 이란정부가 전 세계 시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란정부는 두려워하라! 여성인권과 민주화를 향한 전 세계시민의 연대를!

2022년 10월 19일
이란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모임

<사진>





